

# 金文과 《詩經》의 ‘是若’에 관한 고찰\*

金信周\*\*

---

## ◁ 목 차 ▷

---

- I. 들어가는 말
  - II. 금문의 ‘是若’과 ‘是’字句에 대한 검토
    - 1. 금문 ‘是若’에 대한 몇 가지 견해
    - 2. 금문 ‘是’字句에 대한 분석
  - III. 《詩經》의 ‘是若’에 대한 검토
    - 1. ‘曾孫是若’
    - 2. ‘天子是若’
    - 3. ‘魯侯是若’
    - 4. ‘萬民是若’
  - IV. 결론
- 

## I. 들어가는 말

‘是若’은 금문과 《詩經》에 모두 보이는 일종의 상용어로서, 언뜻 보면 큰 문제없이 해석이 가능할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금문의 ‘是若’에 대해서는 《詩經》의 ‘是若’과 같다고 설명할 뿐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없었고, 典據가 되는 《詩經》의 ‘是若’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의견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또, 기존의 《詩經》‘是若’에 대한 해석이 금문의 ‘是若’에는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금문의 ‘是若’에 대해 제기된 주장들을 검토해보고, 금문 중에 보이는 관련 ‘是’字句에 대한 분석을 통해 ‘是若’의 정확한 문장 구조와 의미를

---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詩經》 중 ‘是若’의 용례도 함께 고찰해보므로써 필자가 제시한 풀이가 《詩經》 ‘是若’의 의미에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연구는 금문 ‘是’字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금문 ‘是’의 의미와 기능을 정리해본다는데 그 가치가 있다. 또한, 王國維가 역설한 ‘二重證據法’에 근거해 출토문헌인 금문 자료로 전래문헌인 《詩經》의 기존 풀이를 검증해보고, 금문과 《詩經》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해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II. 금문의 ‘是若’과 ‘是’字句에 대한 검토

### 1. 금문 ‘是若’에 대한 몇 가지 견해

‘是若’은 금문에서 두 차례 출현하며, 그 구체적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是若’에 대한 해석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다.

- (1) 乍(作)<sup>1)</sup>其造(禡?)鼎十, 用征台(以)迓, 台(以)御賓客, 子孫是若. 5.2732<sup>2)</sup>  
簠大史申鼎  
(제기용 鼎 10개를 제작하니 출정하여 토벌하는데 쓰고, 손님을 초대하는데 쓰라.)
- (2) 用雍(饗)賓客, 子子孫孫, 世世是若. 5.2675 郟王糴鼎  
(잘 익은 음식으로 손님을 접대하는데 쓰라.)

(1) 簠大史申鼎의 ‘簠’은 전래문헌상의 ‘桴’로, 이 기물은 춘추시대桴나라의 것이고, (2) 郟王糴鼎의 ‘郟’은 전래문헌상의 ‘徐’로서, 같은 시기徐나라의 것이다. 두 편의 銘文 말미에 대동소이한 구문이 보이는데, (1) 簠大史申鼎의 명문에서는

1) 청동기 銘文의 釋文은 字形을 근거로 隸定한 것으로 銘文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는 ( ) 안에 해당 글자를 넣어 표시하기로 한다.  
2) 본고에 인용된 청동기 명문 중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에서 편찬한 《殷周金文集成》(北京, 中華書局, 1984-1994)의 탁본을 참고로 한 것은 이후 따로 서명을 표기하지 않고, 탁본 번호만을 명기하도록 하겠다.

‘子孫是若’이라고 하였고, (2) 鄒王糴鼎 명문에서는 ‘子子孫孫, 世世是若’이라고 하였다. 학자들은 이 두 구문의 구조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是若’의 뜻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이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언급한 학자는 武振玉과 陳英傑이 있는데, 이들 또한 ‘是’와 ‘若’에 대한 해석은 각기 다르다.

武振玉은 ‘是’를 도치된 목적어로 쓰인 지시대명사로 보고, 명문이 새겨져 있는 해당 기물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若’에 대해서는 ‘若’의 본뜻은 ‘順’이고<sup>3)</sup>, 여기서는 ‘順’에서 파생된 의미(引伸義)인 ‘善’의 뜻으로 쓰인 동사로, 구체적으로는 ‘善守’의 의미로 풀이했다<sup>4)</sup>. 즉, 武振玉은 ‘子孫是若’을 ‘子孫(주어)+是(도치 목적어)+若(서술어)’의 구조로 문장을 분석했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 명문의 형식상 맨 뒷부분에는 대부분 청동기 제작자의 기원과 후손에 대한 당부의 내용이 출현하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子孫是若’은 ‘후손은 이 기물을 잘 지키기를 바라노라’로 그 뜻을 옮길 수 있겠다.

陳英傑은 毛《傳》과 鄭《箋》의 ‘是若’에 대한 해석을 참고하여 ‘若’을 ‘順’의 의미로 해석했으며, ‘是’는 앞의 ‘子孫’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陳英傑은 ‘子子孫孫, 世世是若’의 구조를 ‘子子孫孫(受事주어)+世世(시간부사어)+是+若(동사)’로 분석하고, ‘是’는 앞의 受事주어를 지칭한다고 주장했다<sup>5)</sup>. 陳英傑의 주장대로라면, 여기서 受事주어는 동작의 대상이 되므로, ‘子子孫孫, 世世是若’은 ‘자손으로 하여금 세세토록 순탄케 할 지어다’ 혹은 ‘자자손손은 세세토록 순조로울 지어다’ 정도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武振玉과 陳英傑은 ‘是’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관점을 달리하지만, ‘是’가 대명사로 쓰였다는 점에선 의견이 일치한다.

3) ‘若’의 갑골문 초기 자형은 𠄎(《殷墟文字甲編》205)로, 이 자형에 대한 해석에는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지금까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葉玉森의 견해이다. 葉玉森은 이 자형을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于省吾 主編《甲骨文字詁林》(北京, 中華書局, 1996), 367쪽 참조.

4) 武振玉은 馬瑞辰이 《詩·魯頌·閟宮》의 ‘萬民是若’에 대해 「《爾雅·釋詁》: ‘若, 善也.’ ‘善’與‘順’義相成, 此承上‘奚斯作詩’言之, 則宜訓善, 謂善其作是詩也.」라고 한 것을 근거로 ‘若’을 ‘善’으로 해석했다. 〈兩周金文詞類研究(虛詞篇)〉(吉林大學古籍研究所 博士學位論文, 2006), 68쪽 참조. 이후 발표한 〈兩周金文指代詞“是”“茲”用法之別〉(《長春大學學報》2007年 第1期)와 〈兩周金文賓語前置句釋論〉(《華夏文化論壇》2008年)에서도 동일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5) 陳英傑《西周金文作器用途銘辭研究》[下](北京, 線裝書局, 2008), 675-676쪽 참조.

위의 두 주장 외에도 '是若'의 구조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학자들이 있다. 唐鈺明은 武振玉과 마찬가지로 '是'는 상술한 청동기를 나타내는 지시대명사이며, '若'은 '保'의 의미라고 보았으며<sup>6)</sup>, 《金文形義通解》에서는 '是'를 음절을 맞추기 위한 구조조사로 분류하였다<sup>7)</sup>. 이밖에 陳雙新은 '是'는 도치 목적어를 표시하는 성분이 아니라 긍정의 어기를 나타내는 부사로 보고, '若'은 '順順利利'의 의미로 풀이했다<sup>8)</sup>.

위의 제설들을 정리해보면, '是'에 대해서는 도치 목적어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受事주어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구조조사, 긍정 어기의 부사로 보는 네 가지 견해로 요약될 수 있다. 또, '若'의 의미에 대해서는 毛《傳》과 鄭《箋》의 영향으로 '順'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대부분인 가운데, '善(善守)'이나 '保'의 의미로 설명한 학자도 있었다. 결국 학자들의 견해 차이는 '是'를 어떠한 성분으로 볼 것인가에 기인하며, 이에 따라 '若'의 해석도 좌우됨을 알 수 있다.

## 2. 금문 '是'字句에 대한 분석

앞서 언급했듯 금문 '是若'의 정확한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是'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파악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동기 명문에 보이는 관련 '是'字句의 용법에 대한 분류 및 분석을 통해 '是若'의 '是'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고찰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우선 《殷周金文集成》, 《近出殷周金文集錄》<sup>9)</sup>, 《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sup>10)</sup>에 수록된 명문 중 '是若'처럼 '是+동사'의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是'字句를 선별한 후, 이 문례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sup>11)</sup>.

6) 唐鈺明 〈據甲、金文資料考索上古詞義二則〉; 《語言研究》1988年 第2期(總第15期), 147쪽 참조.

7) 張世超, 孫凌安, 馬如森, 金國泰 《金文形義通解》(京都, 中文出版社, 1996), 269-270쪽 참조.

8) 陳雙新 〈關於系詞'是'起源的再討論〉; 《中山大學研究生學刊(科會科學版)》1966年 第17卷第3期, 26쪽 참조.

9) 劉雨, 盧岩 編 《近出殷周金文集錄》北京, 中華書局, 2002. 이하 《近出》이라 줄여 적는다.

10) 劉雨, 嚴志斌 編 《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北京, 中華書局, 2010. 이하 《近出二編》으로 줄여 적는다.

11)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 공구서에 수록된 '是'字句의 용례 중 '是+동사'구조의

1) ‘(주어)+是+동사’

‘주어+是+동사’구조의 금문 용례는 뒤에 어떤 동사가 오느냐에 따라 다음의 몇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① ‘주어+是寶’, ‘주어+是保’

일반적으로 청동기 명문의 뒷부분에는 이 기물을 제작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이며, 후손들은 이를 영원히 아끼고 소중히 간직해달라는 당부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기물의 소장에 대한 당부의 말은 대개 고정 격식의 어구로 표현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子子孫孫永寶用’ 혹은 ‘子子孫孫永保用’과 같은 것들이다. ‘永寶用’과 ‘永保用’은 때로 ‘永寶用之’ 및 ‘永保用之’로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之’는 당연히 해당 명문이 새겨진 청동기를 가리킨다. 혹은 ‘之’대신에 기물 종류의 명칭을 직접 쓰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永寶用’과 ‘永保用’의 뒤에 생략된 목적어가 앞에 언급된 청동기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 (3) 齊墜(陳)曼不敢逸康, 肇堇(謹)經德, 乍(作)皇考獻叔饁(饋)廛(盤), 永保用匱(簠). 9.4595 齊墜曼簠  
(齊의 陳曼은 감히 안일하지 않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덕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위대하신 부친 獻叔을 宴饗할 때 사용할 기물을 제작하니 이 簠를 영원히 잘 간수하여라.)
- (4) 眉壽無疆, 子子孫孫, 永保用也(匱). 16.10264 無疆匱  
(만수무강할 것이며, 자손들은 이 匱를 영원히 보존하여 사용토록 하라.)<sup>12)</sup>

이처럼 동사 ‘寶’나 ‘保’의 객체를 드러내는 방법으로는 지시대명사 ‘之’를 사용하

구문이라고 판단되는 용례는 중복되는 문례를 제외하고 약 34개로 집계되었으며, 세 공구서에서 인용하지 않은 명문은 그 출처를 따로 명기하였다. 다만 효율적이고 집약적인 토론 전개를 위해 ‘是+동사’의 형식에 포함된다하더라도 ‘唯+목적어+是+동사’구조, 주어로 쓰인 ‘是’의 용법과 같이 본 연구와 비교적 관련성이 적은 것은 연구범위에서 제외시켰다.

12) ‘眉壽無疆, 子子孫孫, 永寶用’과 같은 청동기 명문 말미의 상용 구문은 그 형식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본고에서 인용되는 이러한 종류의 금문 용례에 대해서는 국문 번역을 생략하도록 하겠다.

거나 해당 기물의 명칭을 직접 쓰는 것 외에 지시대명사 ‘是’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아래의 명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 (5) 繡(纈)書之子孫, 萬世(世)是寶. 16.10008 纈書缶
- (6) 子子孫孫, 其萬年永是寶用. 《近出》971 晉侯燹馬壺, 972 晉侯燹馬壺蓋
- (7) 用祈句眉壽, 其萬年, 靈(靈)冬(終)難老, 子子孫孫是永寶. 15.9713 父季良父壺
- (8) 以(句)兼(永)令(命)、頰(眉)壽, 子孫是保. 7.4096 墜逆甗
- (9) 用享皇祖文考, 用祈吉休峻林, 子孫萬年是保. 《近出二編》50 羊編罍四

위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是’가 동사인 ‘寶’와 ‘保’앞에 위치한다. 일반적인 명문 말미의 내용 및 형식적 특징을 고려하고 관련 문례와의 비교를 통해본다면 우리는 ‘是’가 해당 청동기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임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즉, ‘是’는 도치된 목적어로 쓰인 지시대명사이며, ‘之’를 이용해 목적어를 나타내는 문장과 비교해볼 때 ‘永是寶’나 ‘是永寶’처럼 부사의 위치가 좀 더 자유스럽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이 방면의 연구자라면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굳이 편곡을 할애하는 이유는 ‘是’의 이런 용법(앞쪽에서 언급된 것을 나타내는 도치된 목적어로 쓰인 지시대명사)의 사용 환경 특징을 정리하고 일반화함으로써 뒤에 서술할 다른 용법의 ‘是’와의 차이점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본고의 연구 대상인 ‘是若’의 ‘是’가 어떤 용법에 가깝거나 속하는지를 판단케 해주는 지표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해석된 ‘是’의 용법에 대한 인식은 ‘若’의 정확한 의미 탐색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 ② ‘주어+是尙’

‘是尙’은 ‘주어+是+동사’형식의 금문 중 가장 빈번히 출현하는 형태이다<sup>13)</sup>.

13) 본문의 용례 외에도 16.9974 伯亞臣罍(萬年無疆, 子孫永寶是尙.), 16.9982 喪史賓瓶(子子孫永寶是尙.), 16.10319 要君盃(子子孫孫, [永]寶是尙.), 伯遊父卣(永寶是尙.), 季子康編罍(子子孫孫永寶是尙.)의 명문에서도 ‘是尙’이 보인다. 참고로 伯遊父卣 및 季子康編罍의 명문 출처는 다음과 같다. 周亞 〈伯遊父諸器芻議〉: 《上海博物館集刊》2005年 第10期, 114-129쪽; 安徽省文物考古研究所, 鳳陽縣文物管理所 〈安徽

- (10) 萬年無疆, 子孫是尙. 3.947 匭公子叔遯父鬮
- (11) 萬年無疆, 子子孫永寶是尙. 15.9708 冶仲考父壺
- (12) 子子孫孫, 永保是尙. 1.193-1.198 者濫鐘
- (13) 用祈眉壽, 萬年無疆, 子孫是尙, 子孫之寶, 用孝用享. 7.4107 豐伯車父毀
- (14) 自乍(作)征城, ……某(世)萬子孫, 眉壽無疆, 皿皮(彼)吉人享士, 余是尙<sup>14)</sup>. 2.425 郟濫尹征城

(12) 者濫鐘은 모두 11개의 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편의 명문으로 나뉜다. 위에서 예로 든 1.193-1.198의 명문에서는 ‘子子孫孫, 永保是尙.’로 끝을 맺고 있지만, 다른 한 편(1.199-1.202)에는 ‘子子孫孫, 永保用之.’로 마무리를 하고 있으며, 두 편의 명문 비교를 통해 ‘是’와 ‘之’가 서로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13) 豐伯車父毀에서는 ‘子孫是尙’과 ‘子孫之寶’가 문장 구조상 더욱 선명한 호응을 이루고 있어, ‘是’가 ‘尙’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성분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是’가 가리키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서는 ‘尙’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금문의 ‘是尙’과 《詩經》의 ‘是常’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尙’이 ‘常’과 통가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詩經》의 ‘是常’에 대한 해석에 異見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是尙’의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선 《詩經》에 ‘是常’이 출현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자.

- (15) 俾爾熾而昌, 俾爾壽而臧, 保彼東方, 魯邦是常. 《魯頌·閟宮》  
(당신을 창성하고 번창하게 하며, 당신을 장수하고 잘 되게 하시네. 저 동쪽 나라들을 보전하여)
- (16) 昔有成湯, 自彼氐羌, 莫敢不來享, 莫敢不來王, 曰商是常. 《商頌·殷武》  
(옛날 탕왕이 계실 때는 그곳부터 지나라와 강나라까지 조공을 바치지 않

鳳陽莊一號春秋墓發掘簡報); 《文物》2009年 第8期, 21-29쪽; 劉信芳, 闕緒杭, 周群 〈安徽鳳陽縣卡莊一號墓出土罇鐘銘文初探〉; 《考古與文物》2009年 第3期, 102-108쪽 참조.

14) 郟濫尹征城 명문 끝 부분은 ‘皿皮(彼)吉人享, 士余是尙’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고에서는 陳英傑의 견해를 받아들여 ‘皿皮(彼)吉人享士, 余是尙’로 끊어 읽도록 하겠다. 陳英傑 《西周金文作器用途銘辭研究》[下](北京, 線裝書局, 2008), 674쪽 참조.

은 일이 없었고, 왕을 일현하러 오지 않는 자가 없었네.)

鄭玄은 ‘魯邦是常’의 ‘常’을 ‘守’의 의미로 보았는데<sup>15)</sup>, 이러한 해석이 금문의 ‘是尙’에는 적용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sup>16)</sup>, ‘曰商是常’의 해석에는 적합하지 않고, 典籍 중에도 ‘常’을 ‘守’로 訓釋한 다른 용례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兪樾은 《爾雅·釋詁》의 ‘尙, 右也.’에 근거해 ‘曰商是常(尙)’의 ‘尙’을 ‘助’의 의미로 보았고<sup>17)</sup>, 王國維와 于省吾 및 屈萬里가 이 해석에 찬동하였다<sup>18)</sup>. 만약 兪樾의 해석을 따르게 되면, ‘曰商是常(尙)’과 ‘魯邦是常(尙)’은 ‘상나라(노나라)를 보좌하다’라는 뜻이 되어 《詩經》에서는 의미가 통하지만 금문의 ‘是尙’을 풀이하기에는 적절치 않게 된다.

주지하듯이 ‘常’에는 ‘오래다, 길다(長久)’, ‘영원하다(永遠)’, ‘항상, 늘(恒常)’이라는 뜻이 있으며, 이는 ‘常’의 상용 의미 중 하나이다. ‘常’의 이러한 의미를 《詩經》의 ‘是常’과 금문의 ‘曰尙’에 적용해보면 모두 뜻이 통하며, 금문 자료 내에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常’을 이러한 뜻과 연관 지어 해석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常’을 기본적으로 ‘長久’, ‘永遠’, ‘恒常’의 뜻을 지닌 동사용법으로 간주하고 풀이를 해보면, ‘魯邦是常’은 ‘노나라를 영원하게 하다(영원히 존재케 하다)’, ‘曰商是常’은 ‘상나라를 영원히 따르다’의 뜻으로 해석할

- 15) 鄭玄은 ‘曰商是常’에 대해서는 ‘曰：商王是我常君也.’라고 해석하였다. ‘曰’의 의미에 대해서는 ‘말하다’로 해석하는 견해와 어기조사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是常’의 의미를 탐색한데 있어 ‘曰’의 뜻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曰’에 대한 해석은 잠시 미루기로 하였다.
- 16) 陳初生, 《金文形義通解》, 武振玉은 鄭玄의 해석을 따라 금문의 ‘是尙’을 ‘청동기를 지킨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陳初生 《金文常用字典》(高雄, 復文圖書出版社, 1992), 82쪽; 張世超 등, 《金文形義通解》(京都, 中文出版社, 1996), 118쪽; 武振玉, 《兩周金文詞類研究(虛詞篇)》(吉林大學古籍研究所 博士學位論文, 2006), 68쪽 참조.
- 17) 兪樾 《毛詩四》: 「常當作尙, 古常、尙通用.……然則曰商是尙者, 惟商是助也. 《爾雅·釋詁》: ‘尙, 右也.’ 郭《注》曰: ‘皆相右助.’ 是其義也.」(《續修四庫全書·經部·群經平議》) 《漢語大詞典(3冊)》(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773쪽)에서는 兪樾이 ‘常’과 통가된 것으로 본 ‘尙’을 ‘崇尚’의 의미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 18) 王國維 《與友人論詩書中成語書二》: 「常當讀爲尙, ……尙之言右也.」(《觀堂集林(一)》北京, 中華書局, 1999, 80쪽). 于省吾 《澤螺居詩經新證·澤螺居楚辭新證》(北京, 中華書局, 2003), 65쪽; 屈萬里 《詩經釋義》(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93), 427, 438쪽 참조.



수 있으며<sup>19)</sup>, 여기서 ‘是’는 앞의 ‘魯邦’과 ‘商’을 재지시(複指)하는 역할을 한다<sup>20)</sup>. 또, 금문의 ‘子孫是尙’은 ‘후손은 이를 영원히 하라’ 혹은 ‘후손은 이를 영원한 것으로 삼으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다. 《書·咸有一德》의 ‘常厥德, 保厥位.’에서도 ‘常’이 역시 동사로서, 덕에 ‘늘 힘쓰다’는 의미인 쓰인 것에 비춰본다면, ‘常’에 대한 이런 탄력적인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만약 이렇게 풀이할 경우, 혹은 ‘魯邦是常’ 및 ‘曰商是常’에서의 ‘是’의 의미와 기능이 ‘子孫是尙’의 그것과 다름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뒤에서 살펴 볼 ‘是保’의 용례를 참고해본다면 ‘是’ 뒤의 동사가 동일하더라도 문장 구조가 다른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럼, 아래에서는 ‘子孫是尙’에 대해 앞에서 제시한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지 설명해보기로 하겠다. ‘子孫是尙’의 가장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의 명문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17) 豈(世)萬子孫, 永爲典尙. 9.4649 墜侯因沓敦

(18) 世萬孫子, 以此爲尙. 秦駟玉牘<sup>21)</sup>

- 19) ‘曰商是常’에 대해 馬瑞辰은「曰商是常猶言魯邦是常’, ‘常’、‘長’聲相近, 《廣雅·釋詁》: ‘長, 常也.’ 此詩‘是常’猶云‘是長’耳.」이라 하였고(《毛詩傳箋通釋》[下] 北京, 中華書局, 1989, 1186쪽), 王先謙은 ‘常服屬於商’으로 해석하였다(《詩三家義集疏》[下] 北京, 中華書局, 1987, 1117쪽). 馬瑞辰과 王先謙의 이러한 해석은 모두 ‘常’의 ‘長久’, ‘永遠’의 의미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0) 이런 기능의 ‘是’에 대한 분석은 대명사와 조사로 보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후자의 관점은 원래는 대명사였다가 나중에 조사로 변했다는 의견과 구조조사라는 의견으로 다시 갈리며, 이런 ‘是’의 성질을 어떠한 것으로 규정짓느냐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논의를 거듭해왔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본고의 집필 목적은 ‘是’의 품사 분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용례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是若’의 ‘是’가 목적어 자체를 대신하는 대명사인지 여부를 고찰하는 것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일단 이런 ‘是’를 재지시대명사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설명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다.
- 21) 秦駟玉牘과 관련된 자료 중 ‘以此爲尙’에 대해 언급한 문장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李零 〈秦駟禱病玉版研究〉: 《國學研究(第6卷)》(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525-548쪽; 曾憲通, 楊澤生, 肖毅 〈秦駟玉版文字初探〉: 《考古與文物》2001年 第1期, 49-54쪽; 李家浩 〈秦駟玉版銘文研究〉: 《北京大學中國古文獻研究中心集刊》[2]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2001), 99-128쪽; 王輝 〈秦曾孫駟告華大山明神文考釋〉: 《考古學報》2001年 第2期, 143-158쪽.

(17) 陞侯因脊敦의 ‘典尙’은 곧 ‘典常’으로, 영원불변의 도리를 뜻하는 명사이다. ‘昱(世)萬子孫, 永爲典尙’ 앞쪽에는 여느 다른 명문들처럼 기물의 제작과 용도를 서술하고 있으며, ‘昱(世)萬子孫, 永爲典尙’은 후손들이 앞으로 계속 이 법도를 꼭 지켜주기를 희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 秦駟玉牘에서는 ‘以此爲尙’라고 되어 있어서, ‘是尙(常)’의 뜻이 ‘이를 常規로 삼으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더욱 명확히 나타내준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일반적으로 ‘永是寶’, ‘是永寶’, ‘永寶之’라고 말하는 것을 ‘永以爲寶’(1.225 邵鸞鐘)로 나타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sup>22)</sup>. 결국 ‘是寶’와 ‘是尙’에 ‘주어+동사+목적어’의 해석법을 적용한다면 ‘후손은 이를 소중히 해라’, ‘자손은 이를 영원히 (준수)하라’가 되는 것이고, ‘以此(是)爲+동사’의 풀이에 근거한다면 ‘후손은 이를 소중한 것으로 삼으라’, ‘후손은 이를 불변의 법칙으로 삼으라’는 뜻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是尙(常)’의 ‘尙(常)’은 동사이고, ‘永爲典尙’과 ‘以此爲尙’의 ‘尙(常)’은 명사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며, ‘是’와 ‘此’는 자손들이 귀중한 기물에 대해 지켜야 할 규칙과 태도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것으로, 지시하는 내용 또한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앞내용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是’의 이러한 용법은 ‘是寶’와 ‘是保’의 ‘是’가 해당 청동기를 지칭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도치 목적어라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밀한 의미에서는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陳英傑은 ‘尙’을 ‘常’과 통가된 것으로 보지 않고, 《集韻·漾韻》: ‘尙, 貴也.’ 《字彙·小部》: ‘尙, 崇也, 又尊也.’에 근거하여 ‘是尙’을 ‘기물을 숭상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했는데, 그의 이러한 견해는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나, 금문 용례 중 ‘尙’을 ‘숭상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다른 용례가 없고, ‘魯邦是常’에서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陳英傑은 ‘魯邦是常’의 ‘常’에 대해서는 ‘숭상하다’가 아닌 ‘恒常’의 뜻이라고 보았는데, 이 또한 필자의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과는 상치가 되는 부분이다.

필자가 금문의 ‘是+동사’구조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是’ 뒤의 동사가 동일할 경우, 동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해석이 유지된 반면, ‘是’의 의미 및 기능에 있어서는 상이점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다<sup>23)</sup>. 《詩經》에는 금

22) 1.225 邵鸞鐘: 「我以享孝, 樂我先祖, 以祈眉壽, 世世子孫, 永以爲寶。」

23) ‘是尙’과 ‘是保’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是保’에 대해서는 뒤쪽의 ‘목적어+是+동사’

문보다 훨씬 많은 수의 ‘是+동사’구조가 출현하는데, 필자의 이러한 설명이《詩經》의 모든 ‘是+동사’에도 모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③ ‘是寺’, ‘是制’, ‘是語’, ‘是畚’, ‘是從’

‘是寶’, ‘是尙’ 외에 개별적으로 보이는 ‘주어+是+동사’구조의 명문 용례에는 ‘是寺’, ‘是制’, ‘是語’, ‘是畚’, ‘是從’이 있다. 이중 몇몇 용례의 경우, ‘是’뒤의 동사의 해석에 대해 아직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인데, 아래에서는 먼저 동사의 의미에 대해 가장 타당한 견해를 탐색해본 후, 이에 근거하여 ‘是’의 기능과 뜻을 판정해보도록 하겠다.

(19) 至于璊(萬)年, 分器是寺. 1.149-1.152 鼂公桴鐘

(19) 鼂公桴鐘의 ‘分器’는 일반적으로 천자가 종묘의 寶器를 제후나 종실에 나누어 주고 世守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寺’는 ‘持’와 통가 관계에 있는 글자로 본다<sup>24)</sup>. 그러므로 ‘是寺(持)’는 후손 만대까지 分器된 기물을 잘 보관하라는 뜻이다.

(20) 命(令)尹子庚, 毆民之所亟(極), 萬年無謀(期), 子孫是制. 5.2811 王子午鼎

(20) 王子午鼎 명문 맨 끝 글자의 자형은 ‘𠄎’이다. 이 글자에 대해 伍仕謙, 馬承源, 曹錦炎은 ‘利’로 考釋하였고<sup>25)</sup>, 趙世綱, 容庚, 劉彬徽, 李守奎, 王輝, 鄒芙蓉은 ‘制’로 보았다<sup>26)</sup>. ‘利’의 자형이 ‘制’와 가장 다른 점은 匕(혹은 곡물)의 이삭

에서 다시 논하였다.

24) 陳雙新은 ‘寺’를 ‘庠’로 읽고, 《詩·周頌·臣工》: ‘庠乃錢鎛.’에 대해 毛《傳》이 ‘庠, 具.’라고 해석한 것을 근거로 ‘儲守’의 의미로 보았다.《西周青銅樂器銘辭研究》保定, 河北大學出版社, 2003, 149-150쪽 참조) 여기서는 ‘持’로 읽는 견해를 따른다.

25) 伍仕謙 〈王子午鼎、王孫亶鐘銘文試釋〉; 《古文字研究》第9輯(北京, 中華書局, 1984), 283쪽; 馬承源 《商周青銅器銘文選》[四](北京, 文物出版社, 1988), 424쪽; 曹錦炎 《鳥蟲書通考》(上海, 上海書畫出版社, 1999), 156쪽 참조.

26) 趙世綱, 劉笑春 〈王子午鼎銘文試釋〉; 《文物》1980年 第10期, 30쪽; 趙世綱 〈浙川

이 아래로 처진 모양을 나타내는 왼쪽 편방의 윗부분에 있다. 실제로 탁본의 맨 끝 글자가 다소 선명하지 못하지만, 왼쪽 편방이 '禾'가 아닌 '木'임은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近出》 360-363에 수록된 王子午鼎을 보더라도 이 글자가 '制'임을 확인할 수 있다. '子孫是制' 앞부분에는 이 청동기의 제작 용도와 자신의 공덕 찬양, 후손들에게 바라는 바 등이 서술되어 있는데, 여기서 '是'는 王子午가 했던 이런 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또, '制'에는 법도 혹은 준칙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이를 여기서는 동사로 활용된 것으로 본다면, '子孫是制'는 앞에서 王子午가 했던 훈계를 후손들이 법도로 삼아 힘써 지키라는 격려의 말이 된다.

(21) 子孫用之, 後民是語. 1.183-1.186 余曠遜兒鐘

(21) 余曠遜兒鐘의 '語'에 대해서는 그 견해가 아직까지 분분한 상태이다. 郭沫若은 '語'를 '敵'와 통가된 것으로 보고, '敦敵'의 뜻이라고 했는데<sup>27)</sup>, 이는 곧 '무력적인 의미의 지키다, 방어하다(捍禦)'의 의미이므로 앞의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董楚平은 '後民是語'가 (34) 配兒鉤鐸의 '先人是諍'과 유사한 것으로 '語'는 '娛'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sup>28)</sup>, 이 또한 명문 전체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于省吾는 吳東發의 말을 인용해 '語, 教戒也.'라고 했는데<sup>29)</sup>, 필자의 견해로는 이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是尙', '是制'에서 보듯이

下寺春秋楚墓青銅器銘文考索): 《浙川下寺春秋楚墓》(北京, 文物出版社, 1991), 350쪽; 容庚編著《金文編》(北京, 中華書局, 1985), 290쪽; 劉彬徽《楚系青銅器研究》(武漢, 湖北教育出版社, 1995), 312쪽; 劉彬徽, 劉長武《楚系金文彙編》(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9), 85쪽; 李守奎《楚文字編》(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3), 269쪽; 王輝《商周金文》(北京, 文物出版社, 2006), 290쪽; 鄒英都《楚系銘文綜合研究》(成都, 巴蜀書社, 2007), 79쪽 참조.

27) 郭沫若《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下](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9), 163쪽 참조. 陳初生도 이 의견을 취했다.《金文常用字典》高雄, 復文圖書出版社, 1992, 241쪽)

28) 董楚平은 「語, 是吾」의繁構. 吳器配兒鉤鐸先人是諍, 句式與此相同. '吾', '予', '吳', '虞'古通. 《詩·泂水》: '不吳不揚, 魯詩吳作虞'. 《釋文》: '吳, 謹也.' 《孟子·盡心》: '驩虞如也.' 《音義》引丁云: '驩虞義當作歡娛, 古字通用耳.……本銘之語與配兒鉤鐸之諍, 均讀作娛.'라 하였고(《吳越徐舒金文集釋》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2, 30쪽), 馬承源 또한 이 讀法을 따랐다.《商周青銅器銘文選》[四] 北京, 文物出版社, 1988), 386쪽 참조.

29) 于省吾《雙劍謠吉金文選》(北京, 中華書局, 1998), 110쪽 참조.

‘是’뒤에는 법도, 준칙, 도리와 같이 마땅히 지키거나 따라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어휘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語’를 ‘교훈(敎戒)’ 혹은 ‘선인의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이 또한 같은 맥락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뜻을 지닌 구문이 출현하는 명문의 용례도 발견할 수 있다.

(22) 俾萬世無期, 亟(極)于後民, 永寶季(敎)之. 《近出二編》 878 鄭太子之孫與兵壺

王人聰은 ‘永寶季(敎)之’는 곧 ‘永寶學之’라고 보고, ‘후손들이 이壺를 영원토록 귀중히 다루고, 先人을 본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sup>30)</sup>. ‘永寶季(敎)之’의 앞부분에는 ‘與兵’이 이 기물을 제작해서 앞으로 조상에 대한 제례를 엄수할 것이며, 후손들 또한 이를 지켜줄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之’는 자연히 ‘후손들이 준수해야할 행동준칙’을 뜻함을 알 수 있다. (21) 余購逯兒鐘은 춘추후기 徐나라의 청동기이고, 鄭太子之孫與兵壺 역시 동시기 鄭나라의 기물인데, 양국 간의 지리적 거리가 있긴 하지만, 명문 초입에 ‘누구누구의 자손이 말하길’과 같이 자신의 신분을 밝혀 과시하는 형식 등에서 두 편의 전체적인 명문 풍격이 상당히 근접해있다. 또, (20) 王子午鼎과 (22) 鄭太子之孫與兵壺는 ‘是制’와 ‘敎之’ 바로 앞에 ‘백성과 후손의 사표가 된다(民之所亟(極)), ‘亟(極)于後民’는 말까지 동일하게 출현하고 있어, 명문 끝에 ‘語’, ‘制’, ‘敎’와 같은 의미 범주의 동사들이 오는 것이 춘추시기 중원지역 이남 제후국 명문의 특징은 아닌지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sup>31)</sup>.

앞선 토론을 통해 우리는 ‘是(도치 목적어)+동사’, ‘동사+之(목적어)’, ‘以+목적어+爲+동사(意動용법)’이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後民是語’를 ‘후손들은 이를 교훈으로 삼길 바

30) 王人聰 〈鄭太子之孫與兵壺考釋〉: 「壺銘‘永寶季之’讀爲‘永寶學之’, 意思是說器主之後人應當永遠寶用此壺, 並向先人學習.」(《古文字研究》 第24輯, 北京, 中華書局, 2002, 239쪽)

31) 단, 鄭太子之孫與兵壺 명문에는 남북방 제후국의 풍격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며, ‘是語’의 余購逯兒鐘(徐國)과 ‘是制’의 王子午鼎(楚國) 외에도 ‘是語’의 配兒鉤鐘(吳國), ‘是畚’의 戲巢鐘(吳國)의 명문 역시 ‘是’ 뒤의 동사가 하나의 의미 범주로 묶여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라노라'의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더욱이 뒤에서 설명할 (34)配兒鉤鑿의 '先人是諺'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語'를 '교훈'의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라고 생각된다.

武振玉와 陳英傑은 '語'의 구체적 의미는 밝히지 않은 채 '是'는 '後民'을 재지시하는 대명사라고 주장했는데<sup>32)</sup>, 필자의 주장대로라면 '是'는 기물의 제작자가 앞에서 후손에게 당부하는 내용 혹은 그 일부를 지시하므로 도치 목적어 기능의 지시대명사로 보아야 옳다.

(23) 至于子孫，永寶是畚. 《近出二編》11 戲巢鐘

(23) 戲巢鐘명문 맨 끝의 '畚'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畚'의 자형 구조를 '从余'로 보고, (21) 余購遜兒鐘의 '後民是語'처럼 '娛'와 통가된다고 보는 것이다<sup>33)</sup>. 그러나 黃錦前은 '畚(余)'는 '餘'로 읽어야 하며, 그 뜻은 '長久'로서, '永寶是尙'과 같은 유사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래문헌에서 '畚(余)'와 '餘'가 통용되는 예를 충분하고<sup>34)</sup>, 그 의미 풀이 또한 형식이 유사한 다른 명문과 부합하므로, 黃錦前의 견해가 기존의 그것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畚(余)'와 '語' 모두 魚部에 속하므로 '是畚'를 '是語'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아직까지 두 글자사이에 확실한 다른 통가 용례가 보이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일단 黃錦前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다.

'是畚(余)'를 '是尙'과 유사한 의미로 본다면 '是'는 도치된 목적어로 쓰인 지시대명사로서, 앞내용의 일부분인 '以享以孝于我皇祖'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즉,

32) 武振玉, 〈兩周金文詞類研究(虛詞篇)〉(吉林大學古籍研究所 博士學位論文, 2006), 70쪽; 陳英傑 《西周金文作器用途銘辭研究》[下](北京, 線裝書局, 2008), 673쪽 참조.

33) 谷建祥, 魏宜輝 〈邳州九女墩所出編鑄銘文考辨〉; 《考古》1999年 第11期, 71-72쪽 참조. 이들은 '畚'를 '娛'로 읽는 것이 禮樂器인 본 기물의 성질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34) 郭店簡《老子》乙簡16: '修之家, 其德有畚; 修之鄉, 其德乃長.' '畚'字帛書本、王弼本和傅奕本《老子》皆作'餘'.……《經義述聞》卷二十二: '《廣雅》: "餘, 長久也." 《老子》曰: "修之於家, 其德乃餘; 修之於鄉, 其德乃長." 長、餘皆久也.'(黃錦前〈談兩周金文中的'畚'字〉; 《出土文獻》第2輯, 上海, 中西書局, 2011, 165-167쪽 참조)

‘是畚(余)’는 후손들이 이 기물로써 조상들께 제사를 정성껏 올리는 일을 常道로 여기라는 뜻이다.

(24) 擇乎(厥)吉金, 自乍(作)夬鐘, 子子孫孫, 永保是从. 1.93-1.101 臧孫鐘

‘从’은 곧 ‘從’이다. 陳英傑은 ‘從’은 ‘縱’과 통가되며, 15.9729 涇子孟姜壺 명문 중 ‘用從(縱)爾大樂’의 ‘從’과 같은 용법으로 ‘放縱’, ‘縱逸’의 의미라고 보았다<sup>35)</sup>. 이러한 해석은 아마도 ‘後民是語’의 ‘語’를 ‘娛’로 읽는 일반적 견해를 고려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풀이보다는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是尙’, ‘是制’, ‘是語’, ‘是畚’의 의미와 특성에 근거하여 ‘从(從)’을 ‘聽從’ 혹은 ‘遵從’으로 풀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5.2840 中山王響鼎 명문 중 ‘謀慮皆從(책략을 모두 따르다)’의 ‘從’이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고, 전래문헌에서도 이는 상용되는 의미이다. 따라서 ‘是从’은 ‘이를 따르다, 지키다’의 의미이며, ‘是’는 소중한 청동기를 영원히 지켜야 하는 임무(‘永保’)를 가리키게 된다.

지금까지 금문 중 ‘(주어)+是+동사’로 분류될 수 있는 용례를 대상으로 ‘是’의 의미와 기능을 짚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是’ 뒤의 동사에 대해서도 해석을 시도해보았다. 앞의 분석과 검토를 정리해보면, ‘(주어)+是+동사’의 금문 구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청동기 명문 중 ‘(주어)+是+동사’의 격식은 모두 명문 말미에 출현한다.

둘째, ‘(주어)+是+동사’의 금문 형식에서 ‘是’는 모두 도치된 목적어를 충당하는 지시대명사로 쓰였다.

셋째, 위와 같은 금문 형식에서 ‘是’는 해당 기물을 가리키거나 기물 제작자가 후손에게 당부하거나 훈계한 내용의 일부(기물의 보관 및 사용, 제사 엄수 등)를 이른다.

넷째, ‘(주어)+是(목적어)+동사’는 ‘동사+목적어’의 구조로 해석하는 것 외에, ‘以+목적어+爲+동사(意動용법)’의 방법으로도 풀이가 가능하다.

35) 陳英傑 《西周金文作器用途銘辭研究》[下](北京, 線裝書局, 2008), 675쪽 참조.

## 2) ‘목적어+是+동사’

‘是’ 앞에 명사가 출현하여 언뜻 ‘(주어)+是+동사’구문과 동일한 구조로 보이지만, 사실은 ‘是’앞의 명사가 목적어이고, ‘是’는 이를 재지시하는 대명사인 용례들이 있다.

(25) 余鑄(鑪)鏐是擇, 允唯吉金, 乍(作)鑄餗鐘. 《近出》94-95 遼邦編鑄

‘鑄’와 ‘鏐’는 다른 종류의 청동기 원료이다. 일반적으로는 ‘擇厥吉金, 玄鏐赤鑄, 用鑄乎(厥)餗鐘’(1.245 龜公華鐘)처럼 말하지만, 위 용례에서는 목적어인 ‘鑄鏐’가 동사인 ‘擇’앞에 도치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필자가 판단하기에 위의 ‘鑄(鑪)鏐是擇’처럼 ‘도치 목적어+是+동사’로 분류할 수 있는 금문 용례를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앞에서 필자는 (6) 墜逆般 명문에 보이는 ‘子孫是保’를 ‘주어+是保’의 구조로 규정하였었다. 그런데 아래의 두 문례는 일견 ‘子孫是保’와 문장 구조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26) 爲其盥盤, 用祈眉壽難老, 室家是保, 它[它]<sup>36</sup>熙熙, 男女無期, 于終有卒, 子子孫孫, 永保用之. 《近出》1009 郭公黃盤

(27) 鑄其餗鐘, 台(以)恤其祭祀盟祀, ……龜(邦)邦是保, 其萬年無疆, 子子孫孫, 永保用享. 1.245 龜公華鐘

(26) 郭公黃盤 명문을 살펴보면 郭公黃은 이 盤을 제작함으로써 ‘장수와 不老’를 기원하고, 가문을 보우하사 영원 무궁히 후손들이 번창하기를 축원하고 있다. ‘室家是保’ 뒤에 이어지는 ‘它[它]熙熙, 男女無期’의 뜻을 감안할 때, ‘室家是保’를 ‘주어+도치 목적어+保’구조로 분석하기보다는 ‘是’를 ‘子孫’을 재지시하는 대명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27) 龜公華鐘도 일반적인 명문의 유형적 특징에 따라 맨 뒤에는 후손에 대한 당부와 훈계가 이미 출현하고 있으므로, ‘龜(邦)邦是

36) [ ] 안의 글자는 拓本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나 일반적인 文例를 근거로 보완한 것이다.



保, 其萬年無疆’는 주나라의 안녕과 영원무궁을 기도하는 내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렇듯 동일한 ‘명사+是保’의 유형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문장 구조의 용례를 《詩經》에서도 찾을 수 있다.

- (28) 子有鐘鼓, 弗鼓弗考. 宛其死矣, 他人是保. 《國風·山有樞》  
 (그대는 종과 북이 있어도 두드리지도 않고 치지도 않네. 만약에 죽게 되면 딴 사람이 차지하리.)
- (29) 錫爾介圭, 以作爾寶. 往近王舅, 南土是保. 《大雅·崧高》  
 (그대에게 큰 홀을 내리니 그대의 보배로 삼으라. 가시오, 외숙이시여, 남쪽 땅을 보전하시오.)
- (30) 王命仲山甫, 式是百辟, 纘戎祖考, 王躬是保. 《大雅·烝民》  
 (왕이 중산보에게 명하시어 모든 제후의 법도가 되게 하고, 조상을 계승하여 왕의 몸을 보호하게 하셨네.)

위의 용례들은 ‘명사+是+동일 동사’의 구조라 하더라도 ‘是’가 도치된 목적어를 충당하는 지시대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와 ‘是’앞의 목적어를 재지시하는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모두 가능함을 증명해준다. 필자는 앞서 청동기 명문의 ‘是尙’과 《詩經》의 ‘是常’을 대상으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미 다루었는데, 《詩經》 ‘是保’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 (31) 余雖小子, 穆穆帥秉明德, 剌剌(烈烈)趨趨(桓桓), 邁(萬)民是敕, 威畜胤士, 赫赫(藹藹)文武, 鋗(鎮)靜(靖)不廷. 8.4315 秦公罍<sup>37)</sup>  
 (나는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경건하게 명덕을 갖추도록 본받고자 하였으며, 용맹하고 위풍당당하게 만백성을 치리하였다. 부자 세습이 되는 관리를 모두 수용하였고, 품위가 장성한 문관과 무관이 조정에 알현하러 오지 않는 제후국들을 평정하였다.)
- (32) 余唯(雖)末小子, 余非敢寧忘(荒),……天命是遯, 定均庶邦. 1.210-1.211, 1.217-1.222 蔡侯鉶鐘  
 (나는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감히 안일하거나 나태하지 않고,……천명을 받들어 많은 제후국들을 평정했다.)

37) 1.270 秦公罍 명문에는 ‘萬生是敕’로 되어 있다.

- (33) 余彌(彌)心畏認(忌), 余四事是台(以), 余爲大攻厄、大事(史)、大徒、大宰. 1.271 鬯罍  
(저는 두렵고 망설이는 마음을 가득 품고, 네 가지 직무를 맡아 大攻厄, 大史, 大徒, 大宰가 되었습니다.)

(31) 秦公燬 명문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선조들의 빛나는 공덕을 찬양하고, 중간 부분에서는 秦公 자신의 치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簋의 제작 및 용도 서술과 祈福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위의 용례는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萬民是敕’은 ‘백성을 다스리다’는 뜻이며, ‘是’는 ‘萬民’을 재지시하고 있다. 또, 5.2757 曾子旂鼎 명문에도 ‘百民是奠’이 보이는데, 磨滅이 심해 명문 전체의 정확한 뜻을 유추하기는 어렵지만, ‘奠’에 ‘定’의 의미가 있으므로, ‘萬民是敕’과 같은 구조로 보고 ‘백성을 안정시키다’로 풀이할 수 있다. (32) 蔡侯鈕鐘의 ‘逕’은 곧 ‘將’으로<sup>38)</sup>, 《詩·周頌·我將》: ‘我將我享’의 ‘將’과 마찬가지로 ‘奉’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天命是逕’은 ‘천명을 받들다’란 뜻으로 《儀禮·聘禮》: ‘將命于朝’의 ‘將命’과 유사하다. (33) 鬯罍의 ‘四事’는 뒤에 나오는 ‘大攻厄, 大史, 大徒, 大宰’의 네 직책을 의미한다. ‘台(以)’는 동사 용법의 ‘用’으로 사용되어 ‘관장하다’, ‘맡다’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四事’는 ‘台(以)’의 도치된 목적어이다.

위 (31)-(33)에서 ‘萬民’, ‘天命’, ‘四事’는 문맥상 주어로 해석될 수 없으므로, ‘도치 목적어+是+동사’구문 분석에 대한 확증이 될 수 있다.

38) ‘逕’에 대한 隸定과 해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본고에서는 徐中舒, 馬承源, 李學勤, 黃德寬 등의 견해를 따라 ‘將’으로 해석하겠다. 徐中舒 〈金文叢辭釋例〉: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1936年 第6本第1分, 38-39쪽; 馬承源 《商周青銅器銘文選》(三) 北京, 文物出版社, 1988, 47쪽; 李學勤 〈由蔡侯墓青銅器看初吉和吉日〉: 《夏商周年代學札記》 沈陽, 遼寧大學出版社, 1999年, 98쪽; 黃德寬 〈說逕〉: 《古文字研究》第24輯, 北京, 中華書局, 2002年, 272-275쪽 참조. 이밖에 다른 의견들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郭沫若 《由壽縣蔡器論到蔡墓的年代》: 《考古學報》1956年 第1期, 2쪽; 陳夢家 《壽縣蔡侯墓銅器》: 《考古學報》1956年 第2期, 110쪽; 于省吾 〈壽縣蔡侯墓銅器銘文考釋〉: 《古文字研究》第1輯, 北京: 中華書局, 1979年, 41쪽; 陳秉新 〈壽縣蔡侯墓出土銅器銘文通釋〉: 《楚文化研究論集》第2集,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1991年, 356쪽.

## (34) 子孫用之, 先人是諄. 2.426-2.427 配兒鉤鐘

‘諄’은 다른 금문 자료에는 보이지 않는 글자로서, 아직까지 이 글자에 대한 정설은 없다. 曹錦炎은 ‘从言, 予聲’의 구조로 보고, ‘予’와 통가되어 ‘賜’의 뜻으로 해석했고<sup>39)</sup>, 沙孟海는 ‘諄’로 隸定하고 ‘語’의 異體字라고 보았다<sup>40)</sup>. 曹錦炎의 의견에 따라 ‘先人是諄’을 해석해보면, ‘先人’이 (기물을)하사했다는 뜻이 될 것이나, 이러한 내용은 명문 말미의 일반적인 격식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미 몇몇 연구자들은 ‘先人是諄’과 (21) 余曠遜兒鐘의 ‘後民是語’가 유사한 의미라고 설명하였으며, 필자 또한 지금까지의 검토에 근거해 이러한 의견이 매우 타당하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앞서 ‘是語’, ‘是制’에 대하여 해석한 내용에 준한다면, ‘先人是諄’은 ‘선인을 본받다’ 혹은 ‘선인(의 말)을 교훈으로 삼다’로 풀이가 가능하다. 또한, ‘後民是語’에서는 ‘是’가 후손에게 당부하는 내용 혹은 그 일부를 가리키는데 반해, ‘先人是諄’의 ‘是’는 ‘先人’을 재지시하고 있다는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다.

‘목적어+是+동사’ 형식의 가장 큰 특징은 (33) 鬯罍과 (34) 配兒鉤鐘을 제외하고는 모두 명문 중간에 출현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33) 鬯罍의 경우 명문 말미의 형식 자체가 다른 명문과는 차이가 커서 비교가 어려우므로, 엄격하게는 (34) 配兒鉤鐘 한 용례만 예외라고 간주할 수 있다.

애초 본고에서 금문의 ‘是+동사’구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목적은 ‘子孫是若’의 문장 구조와 의미를 규명하기 위함이었다. ‘(주어)+是+동사’와 ‘목적어+是+동사’가 지니는 각각의 특징을 종합해볼 때, 우선 ‘子孫是若’은 명문 끝에 출현한다는 점이 ‘(주어)+是+동사’ 형식의 첫 번째 특징에 부합한다. 또한, ‘(주어)+是+동사’의 주어가 대부분 ‘子孫’인 점을 고려한다면, ‘子孫是若’은 ‘주어+是+동사’ 형식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子孫是若’이 ‘주어+是+동사’의 유형이라면, 이는 ‘子孫若之’나 ‘子孫以此爲若’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며, ‘是’는 앞의 내용에서 언급

39) 曹錦炎 〈吳越青銅器銘文述編〉: 《古文字研究》第17輯(北京, 中華書局, 1989), 88쪽 참조.

40) 沙孟海는 ‘呂’와 ‘予’가 모두 魚部에 속하기 때문에, 이 글자를 ‘諄’로 고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配兒鉤鐘考釋〉: 《考古》1983年 第4期, 341쪽 참조)

된 단어나 내용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若’의 구체적인 의미를 확정짓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음 장에서는 《詩經》의 ‘是若’에 대한 검토를 통해 ‘若’의 의미에 대해 탐색해보기로 하겠다.

### Ⅲ. 《詩經》의 ‘是若’에 대한 검토

《詩經》에서 ‘是若’은 4차례 출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詩經》의 ‘是若’을 금문 ‘是若’의 뜻을 풀이하는데 있어 중요한 증거 자료로 인식하고, 이를 빼놓지 않고 언급해왔다. 더욱이 금문의 ‘是若’과 관련해서는 형식이 대동소이한 두 문례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詩經》 ‘是若’은 금문 ‘是若’의 정확한 해석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詩經》의 ‘是若’에 대한 해석이 곳곳마다 다르고, 학자마다 일치하지 않아 이러한 해석들을 금문의 ‘是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반대로 앞서 살펴본 금문 ‘是若’에 대한 해석이 《詩經》 ‘是若’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앞서 고찰해본 금문 ‘是若’의 해석이 《詩經》의 ‘是若’의 4가지 용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차례로 검토해봄으로써 《詩經》의 ‘是若’에 대한 가장 타당한 풀이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曾孫是若’

《小雅·大田》에 보이는 ‘是若’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35) 大田多稼，既種既戒，既備乃事。以我覃耜，俶載南畝，播厥百谷，既庭且碩，曾孫是若。

(큰 밭에 농사를 많이 짓나니 종자를 고르고 농기구를 갖추어 준비를 마치고 일을 하였네. 나의 날카로운 보습으로 남쪽 밭일을 시작하여 여러 가지 곡식의 씨앗 뿌리네. 곧고 크게 자라니 증손이 이를 좋아하네.)

《大田》은 농사에 힘쓴 결과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였음을 노래한 시이다. 鄭《箋》

에서는 ‘若’을 ‘順’으로 해석하고, ‘以順民事, 不奪其時’라고 설명했는데, ‘曾孫是若’을 백성들의 일, 즉 농사일에 대해 응하고 따라주어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朱熹 역시 蘇轍의 해석을 인용하여 ‘그 자란 것이 모두 꺾꽂고 크니 증손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르는 것(故其生者皆直而大, 以順曾孫之所欲.)의 뜻으로 풀이를 하였고<sup>41)</sup>, 屈萬里는 ‘若’이 ‘諾’과 통가되는 것으로 보고, ‘滿意’의 의미로 해석하였다<sup>42)</sup>.

前賢들의 의견 중 屈萬里의 견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금문 ‘子孫是若’의 해석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앞 장에서 필자는 ‘子孫是若’이 ‘주어+是+동사’의 형태에 속한다는 전제 아래, ‘子孫若之’나 ‘子孫以此爲若’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만약 《爾雅·釋詁》에서 ‘若, 善也.’라고 한 것과 屈萬里의 해석을 참고하고, ‘善’은 곧 ‘好’의 의미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曾孫是若’은 ‘증손이 이를 좋아하네’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 금문 ‘子孫是若’은 명령이나 당부의 語氣이므로, 이를 반영하면 ‘자손은 이를 좋아할지어다(아낄지어다)’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럴 경우, ‘曾孫是若’에서 ‘是’는 농사의 풍성한 수확을 의미하고, ‘子孫是若’에서의 ‘是’는 해당 기물을 가리키게 되어, 도치된 목적어를 대신하는 지시대명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若’을 ‘善’, ‘好’의 의미로 해석한 것이 《시경》과 금문에서 모두 통하므로, 다른《詩經》의 용례에서도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 2. ‘天子是若’

《大雅·烝民》의 ‘是若’ 용례는 다음과 같다.

- (36) 仲山甫之德, 柔嘉維則. 令儀令色, 小心翼翼. 古訓是式, 威儀是力. 天子是若, 明命使賦.  
(중산보의 덕은 부드럽고 훌륭하며 법도가 있네. 아름다운 몸가짐과 좋은 모습에 조심하고 공경하며 옛 교훈을 본받고, 올바른 몸가짐에 힘쓰니, 천자가 이를 좋게 여겨 王命을 중산보로 하여금 널리 펴게 하였네.)

41) (宋) 朱熹 《詩集傳》(北京, 中華書局, 2011), 208쪽 참조.

42) 屈萬里 《詩經釋義》(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93), 289쪽 참조.

毛《傳》은 ‘若’을 ‘順’으로 해석하고, ‘賦’는 ‘布’로 풀이하였다. 鄭《箋》에서는 ‘그 행한 바를 따르는 것이다. 왕의 政敎를 드러내어 밝히고자 군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널리 퍼뜨리게 하는 것이다’(是順從行其所爲也. 顯明王之政敎, 使群臣施布之.)라고 하였고, 孔《疏》 역시 ‘천자가 행한 바를 따라 순종하는 것’(以此人隨天子之所行, 于是從行而順之.)이라고 설명하였다. 만약 이러한 해석을 따른다면, ‘天子是若’에서 ‘是’는 도치된 목적어인 ‘天子’를 가리키는 재지시대명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是’를 仲山甫로 보고, ‘天子是若’, ‘明命使賦’는 ‘천자가 仲山甫를 좋게 여겨 王命을 仲山甫로 하여금 널리 퍼게 하였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해석이 ‘是若’에 대해 일관된 뜻풀이를 제시하고, 금문 ‘是若’의 의미와도 부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내용 및 《烝民》편 전체의 作詩 의도와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먼저 바로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王命仲山甫, 式是百辟.……出納王命, 王之喉舌, 賦政于外, 四方爰發.’(왕이 중산보께 명하시니 모든 제후들의 모범이 되게 하셨네.……왕의 명령을 받들고 퍼니, 왕의 입이 되고, 밖으로 政命을 반포하니 온 사방에 두루 행하여지네.)라고 했는데, 이는 모두 ‘天子是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仲山甫의 훌륭한 인품을(仲山甫之德,……威儀是力, 배경) 왕이 마음에 들어 하여(天子是若, 계기), 왕의 여러 시책들을 맡겨 행하게 했으며(明命使賦, 결과), 그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明命使賦’ 뒤에 서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烝民》편은 仲山甫가 宣王의 명을 받아 齊나라에 성을 쌓으러 갈 때, 尹吉甫가 지어 보낸 시라고 알려져 있다. 만약 ‘天子是若’을 기존의 해석처럼 ‘천자를 따르다’는 뜻으로 본다면, 이는 仲山甫의 인덕을 칭송하는 내용의 연장선상에 속하게 되므로, ‘明命使賦’ 이하 내용과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필자가 주장하는 해석보다 긴밀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明命使賦’의 주체는 천자임이 분명한 바, ‘天子是若’을 ‘주어+도치 목적어+서술어’의 구조로 분석한다면, 두 구문의 주어가 일치하여 해석상에서도 훨씬 자연스러울 수 있다.

### 3. ‘魯侯是若’

《魯頌·閟宮》에서는 ‘是若’이 두 차례 출현하는데, 먼저 보이는 ‘魯侯是若’부터

검토해보기로 하자.

(37) 保有鳧繹，遂荒徐宅，至於海邦。淮夷蠻貊，及彼南夷，莫不率從，莫敢不諾，魯侯是若。

(부산과 역산을 차지하고 드디어 서나라 땅까지 확장하여 바닷가 지역에 까지 이르렀네. 회이와 만백을 비롯한 저 남쪽 오랑캐들이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감히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노나라 임금이 이를 좋아하네.)

‘魯侯是若’에 대해 지금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大雅·烝民》의 ‘天子是若’처럼 ‘노나라 임금에게 순종하다’로 보는 견해이다. 孔《疏》에서는 ‘노나라 임금의 공로로 인해 순순히 복종하는 것(此皆由魯侯之功，於是順服也.)’이라고 풀이했고, 朱熹도 ‘泰山，龜，蒙，鳧，繹은魯나라의 소유이다. 그 나머지는 나라의 동남쪽에 있었는데, 세력을 서로 연합하여 나라에 복종시킬 수 있었다.(泰山、龜、蒙、鳧、繹，魯之所有。其餘則國之東南，勢相聯屬，可以服從之國也.)’<sup>43)</sup>라고 해석했다. 이후의 많은 주해서에서도 이 견해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鄭玄의 해석은 조금 다르다. 鄭《箋》에서는 ‘是若者，是僖公所謂順也.’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문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是若’이란 것은 이것이 僖公이 말한 바 ‘順이다’란 뜻이다. 즉, 여기서 ‘是’라고 함은 사방의 오랑캐들이 모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해 노나라의 임금인 僖公이 ‘順’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鄭玄의 이러한 견해는 앞의 주장들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며, ‘若’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是若’을 어떤 현상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말로써 보았다는 점에서 필자의 주장과 일면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是若’을 필자의 주장대로 해석한다면 ‘魯侯是若’의 뜻은 ‘(사방의 오랑캐들이 모두 복종하고 따르니)노나라 임금이 이를 좋아했다(좋게 여겼다)’가 될 수 있다.

필자는 ‘莫不率從。莫敢不諾，魯侯是若.’이 (16) 《商頌·殷武》의 ‘莫敢不來享，莫敢不來王，曰商是常.’과 문장 구조 및 내용이 매우 흡사한데도 불구하고, ‘曰商是常(상나라를 영원히 따르다)’과 ‘魯侯是若’의 형식을 다르게 분석하는 것이 타당

43) (宋) 朱熹《詩集傳》(北京，中華書局，2011)，323쪽 참조.

한지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是’ 뒤의 동사가 동일할 경우, ‘是’가 가리키는 내용은 다를 수 있어도, 동사 자체에 대한 의미는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魯侯是若’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와 같은 의견을 견지하도록 하겠다.

#### 4. ‘萬民是若’

《魯頌·閟宮》의 맨 마지막 부분에 ‘萬民是若’이 출현하며, 용례는 다음과 같다.

(38) 徂來之松，新甫之栢，是斷是度，是尋是尺，松栢有鳥，路寢孔碩。新廟變變，奚斯所作。孔曼且碩，萬民是若。

(조래산의 소나무와 신보산의 잣나무를 자르고 쪼개며 재어보고 마름질하니 소나무로 만든 서까래가 크기도 하고 正寢이 심히 웅장하도록. 새로운 묘당이 크고 아름다우니 奚斯가 지은 것일세. 심히 길고 또 크니 온 백성들 이를 좋아하네.)

‘萬民是若’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하나는 鄭《箋》과 孔《疏》에서 제시한 해석으로 鄭玄은 ‘國人謂之順也.’라고 했고, 孔穎達 또한 ‘萬民於是謂之順，民既以之爲順.’라고 풀이했다. 특히 이 두 학자의 견해는 ‘萬民是若’에 대한 문장 구조 자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필자의 견해와 완전히 일치한다. 나머지 두 가지 해석은 현대의 시경 주해자들이 비교적 많이 채택하고 있는 해석인데, 그 중 하나는 앞서 《大田》의 ‘曾孫是若’를 논할 때도 언급했던 것으로, ‘백성이 바라는 바를 따라준다’로 보는 견해이다. 朱熹는 ‘萬民是若’을 ‘順萬民之望也.’라고 풀이했다<sup>44)</sup>.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이 노나라 임금에게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보는 견해로 屈萬里는 ‘言國人順從魯侯也.’라고 설명했다<sup>45)</sup>.

만약 ‘曾孫是若’과 ‘萬民是若’의 문장 구조 및 의미에 있어서 거의 똑같음을 고려한다면, 鄭玄과 孔穎達의 위와 같은 구조 분석은 《大田》의 ‘曾孫是若’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필자의 주장에도 설득력을 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된다.

44) (宋) 朱熹 《詩集傳》(北京, 中華書局, 2011), 324쪽 참조.

45) 屈萬里 《詩經釋義》(臺北, 文化大學出版社, 1993), 429쪽 참조.



다. 《閟宮》의 이 부분은 노나라 僖公이 廟堂을 새로 지었고 이를 송축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萬民是若’은 웅장하게 修築된 正寢을 보고 기뻐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서술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詩經》의 네 가지 ‘是若’ 용례에 대해 살펴보고 가장 합당한 해석을 타진해보았다. 필자는 금문 ‘子孫是若’의 분석틀을 토대로 《詩經》의 ‘是若’에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해석법으로 ‘이를 좋아하다’, ‘이를 좋게 여기다’를 제시하였다. 이는 ‘若’의 ‘善’의 의미에 기초한 것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喜好’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모든 ‘是若’의 의미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다. 또한, 《詩經》‘是若’의 ‘是’ 또한 모두 도치된 목적어를 나타내는 지시대명사로서 주어가 만족스럽게 여기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IV. 결론

지금까지 금문과 《詩經》의 ‘是若’의 정확한 의미를 규명하고자 청동기 명문의 관련 ‘是’字句를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詩經》‘是若’의 네 용례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보았다.

금문 ‘子孫(世世)是若’에 대한 견해 차이의 주된 요인은 ‘是’를 어떤 기능과 의미의 성분으로 보느냐와 ‘若’을 무슨 뜻으로 해석하느냐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子孫(世世)是若’의 구문 분석을 위해 ‘是+동사’로 판단되는 금문 용례 34개를 선별한 후 연구를 진행한 결과, ‘是+동사’의 금문 형식은 크게 ‘(주어)+是+동사’와 ‘목적어+是+동사’의 형태로 나뉘어 알 수 있었다. 또, 각 형식에는 고유한 특징이 있었는데, ‘(주어)+是+동사’ 형식의 경우, 모두 명문 말미에 출현하였고, ‘是’는 모두 도치된 목적어를 총당하는 지시대명사로 쓰여, 해당 기물이나 기물 제작자가 후손에게 훈계한 내용을 가리키고 있었다. 해석 방법에 있어서는 ‘(주어)+동사+목적어(是)’의 구조로 해석하는 것 외에도 ‘(주어)+以+목적어(앞에 언급한 내용)+爲+동사(意動용법)’으로도 풀이가 가능했다. ‘목적어+是+동사’ 형식은 한 용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명문 중간에 출현하였으며, ‘是’가 앞의 목적어를 재지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근거로 본고에서는 ‘子孫(世世)是若’을 ‘(주어)+是+동사’ 형식으로 분류하였으며, 금문과 《詩經》의 ‘是若’에 모두 적용 가능한 ‘若’의 해석으로서 ‘善’, ‘好’를 제시하였다. 금문 ‘子孫(世世)是若’은 ‘자손은 이 기물을 좋아하여라(아끼어라)’로 해석이 가능하였고, 《詩經》 ‘是若’ 역시 ‘이를 좋아하다’ 혹은 ‘이를 좋게 여기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었다.

출토문헌과 전래문헌의 대조 및 분석을 통해 그동안 의론이 분분했던 ‘是若’에 대해 일관되게 해석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했다는데 본고의 연구 의의가 있으며, 금문 ‘是+동사’ 구조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및 정리 결과는 이후 관련 연구의 참고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參考文獻】

- (宋) 朱熹 《詩集傳》 北京, 中華書局, 2011  
 (清) 馬瑞辰 《毛詩傳箋通釋》 北京: 中華書局, 1989  
 (清) 王先謙 《詩三家義集疏》 北京: 中華書局, 1987  
 谷建祥, 魏宜輝 〈邳州九女墩所出編鐘銘文考辨〉 《考古》 1999年 第11期  
 郭沫若 《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下]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9  
 郭錫良 〈試論上古漢語指示代詞的體系〉; 《漢語史論集》 北京, 商務印書館, 1997  
 屈萬里 《詩經釋義》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93  
 唐鈺明 〈甲骨文“唯賓動”式及其蛻變〉; 《著名中年語言學家自選集: 唐鈺明卷》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2  
 唐鈺明 〈據甲、金文資料考索上古詞義二則〉; 《語言研究》 1988年 第2期(總第15期)  
 董楚平 《吳越徐舒金文集釋》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2  
 劉彬徽, 劉長武 《楚系金文彙編》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9  
 劉彬徽 《楚系青銅器研究》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1995  
 劉信芳, 闕緒杭, 周群 〈安徽鳳陽縣卡莊一號墓出土鐘銘文初探〉; 《考古與文物》 2009年 第3期  
 劉雨, 盧岩 編 《近出殷周金文集錄》 北京, 中華書局, 2002  
 劉雨, 嚴志斌 編 《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 北京, 中華書局, 2010  
 李家浩 〈秦駟玉版銘文研究〉; 《北京大學中國古文獻研究中心集刊》[2]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2001

- 李零〈秦駟禱病玉版研究〉:《國學研究(第6卷)》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9
- 李守奎《楚文字編》上海,華東師範大學出版社,2003
- 李學勤〈由蔡侯墓青銅器看初吉和吉日〉:《夏商周年代學札記》沈陽,遼寧大學出版社,1999
- 馬承源《商周青銅器銘文選》北京,文物出版社,1988
- 武振玉〈兩周金文賓語前置句釋論〉:《華夏文化論壇》2008
- 武振玉〈兩周金文詞類研究(虛詞篇)〉吉林大學古籍研究所 博士學位論文,2006
- 武振玉〈兩周金文指代詞“是”“茲”用法之別〉:《長春大學學報》2007年 第1期
- 沙孟海〈配兒鉤鑿考釋〉:《考古》1983年 第4期
- 徐中舒〈金文假借釋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1936年 第6本第1分
- 安徽省文物考古研究所,鳳陽縣文物管理所〈安徽鳳陽莊一號春秋墓發掘簡報〉:《文物》2009年 第8期
- 伍仕謙〈王子午鼎、王孫亶鐘銘文試釋〉:《古文字研究》第9輯,北京,中華書局,1984
- 王國維《觀堂集林》北京,中華書局,1999
- 王文耀《簡明金文詞典》上海,上海辭書出版社,1998
- 王人聰〈鄭大子之孫與兵壺考釋〉:《古文字研究》第24輯,北京,中華書局,2002
- 王輝〈秦曾孫駟告華大山明神文考釋〉:《考古學報》2001年 第2期
- 王輝《商周金文》北京,文物出版社,2006
- 容庚 編著《金文編》北京,中華書局,1985
- 于省吾 主編《甲骨文字詁林》北京,中華書局,1996
- 于省吾《雙劍謠吉金文選》北京,中華書局,1998
- 于省吾《澤螺居詩經新證·澤螺居楚辭新證》北京,中華書局,2003
- 張世超,孫凌安,馬如森,金國泰《金文形義通解》京都,中文出版社,1996
- 張亞初《殷周金文集成引得》北京,中華書局,2001
- 張玉金《西周漢語代詞研究》北京,中華書局,2006
- 張玉金《西周漢語語法研究》北京,商務印書館,2004
- 曹錦炎〈吳越青銅器銘文述編〉:《古文字研究》第17輯,北京,中華書局,1989
- 曹錦炎《鳥蟲書通考》上海,上海書畫出版社,1999
- 趙世綱,劉笑春〈王子午鼎銘文試釋〉:《文物》1980年 第10期
- 趙世綱〈浙川下寺春秋楚墓青銅器銘文考索〉:《浙川下寺春秋楚墓》北京,文物出版社,1991
- 周法高《中國古代語法》[稱代編]北京,中華書局,1990
- 周亞〈伯遊父諸器芻議〉:《上海博物館集刊》2005年 第10期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殷周金文集成》北京，中華書局，1984-1994
- 曾憲通，楊澤生，肖毅〈秦駟玉版文字初探〉；《考古與文物》2001年 第1期
- 陳雙新〈關於系詞‘是’起源的再討論〉；《中山大學研究生學刊(科會科學版)》1966年 第17卷 第3期
- 陳雙新《西周青銅樂器銘辭研究》保定，河北大學出版社，2003
- 陳英傑《西周金文作器用途銘辭研究》〔下〕北京，線裝書局，2008
- 陳初生《金文常用字典》高雄，復文圖書出版社，1992
- 鄒芙都《楚系銘文綜合研究》成都，巴蜀書社，2007
- 洪家義《金文選注釋》南京，江蘇教育出版社，1988
- 黃錦前〈談兩周金文中的‘畚’字〉；《出土文獻》第2輯，上海，中西書局，2011
- 黃德寬〈說逕〉；《古文字研究》第24輯，北京，中華書局，2002

### 【中文提要】

本文以推究金文和《詩經》所見的‘是若’的正確意義為目的，對青銅器銘文裡有關‘是’字句進行全面的分析，並以此為基礎探討四條《詩經》的‘是若’用例。

迄今對金文的‘子孫(世世)是若’未有定論，其主要原因在於對‘是’的功能和意義、‘若’的詞意眾說紛紜，莫衷一是。因此，本文篩選並探索三十四條‘是+動詞’結構的金文文例，得出以下結果：

第一，金文‘是+動詞’格式可分為‘(主語)+是+動詞’和‘賓語+是+動詞’兩大類，各形式皆具特徵。

第二，金文‘(主語)+是+動詞’俱出現於一篇銘文的末端。

第三，金文‘(主語)+是+動詞’形式中的‘是’字用為充當前置賓語的指示代詞，一般是指該器物或器主在前面向後孫所說的訓誡內容。

第四，金文‘(主語)+是+動詞’格式可解釋為‘(主語)+動詞+賓語(‘是’)’結構，亦可釋作‘(主語)+以+賓語(前面提到的內容)+為+動詞(意動用法)’。

第五，‘賓語+是+動詞’之類除了一條文例以外，皆見於一篇銘文的中間部分，這種‘是’字有複指前置賓語的作用。

筆者以上述的‘是+動詞’的特點為據，認為金文裡的‘子孫(世世)是若’屬於‘(主語)+是+動詞’格式，並提出金文與《詩經》的‘是若’皆講得通順的解釋方法。

‘若’釋作‘善’，‘善’有‘好’意，金文‘子孫(世世)是若’可釋爲‘希望子孫珍借它(該器物)’或‘希望子孫以爲善’，《詩經》的‘是若’以此類推，那些文意豁然貫通。

總而言之，本文的研究意義在於通過出土文獻與傳世文獻的對照和分析，對歷來意見分歧的‘是若’提出較有統一性的解釋法，對金文‘是+動詞’結構的通盤性的考察成果，以供學界作參考。

### 【主題語】

古文字, 金文, 詩經, 是, 是若, 指示代詞

Ancient writing, bronze Inscriptions, Shi Jing, Shi, Shi-Ruo, A demonstrative pronoun

투고일: 2012. 1. 15 / 심사일: 2012. 1. 20~2. 6 / 게재확정일: 2012. 2. 10